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나

(시편 35:1-2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27절). 시인이 승리해야만 주변에서 그의 의로움을 목격하고 승리를 믿고 기다리던 무수한 의인들이 '여호와와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므로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호소합니다.

수들은 거짓 증인들을 법정에서 세워 근거 없는 일을 가지고 시인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입증했습니다.

또 다윗의 원수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굶은 벼룩을 입고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계속적으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환난을 당하자 저들은 오히려 기뻐했고 다윗을 조롱하며 치고 찢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며 선량한 사람을 매장하려는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준 은인에게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17절) 라고 하며 하나님의 변호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겠다고 합니다(18절).

3. 구원을 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24절).

다윗은 군사적 위협과 위종의 법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자신이 당하는 일로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결코 역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빙자하여 일반적으로 자기편의 승리만을 떼쓰듯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27절). 시인이 승리해야만 주변에서 그의 의로움을 목격하고 승리를 믿고 기다리던 무수한 의인들이 '여호와와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므로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죄함을 보셨을 뿐 아니라 거저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음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판과 송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다윗은 개인의 복복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공과 사의 입장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므로 우리는 원수를 끝까지 돌아보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수를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서 무력한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나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10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5편은 소위 저주의 시로 불립니다. 시인은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요청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와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4-5절). 이런 기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저주에 대해 어떤 주석가들은 구약과 신약의 정신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신약에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지만 구약에는 이런 교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저자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서로 다른 교훈을 주실 리 없습니다.

본편의 저자인 다윗은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고 있는 공격과 비난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합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에 모든 면에서 무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비난하는 그런 죄는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재판관으로서 쓴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반대한 사람,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은 공과 사를 잘 구별하여 기도한 사람입니다.

1.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소서

본문의 4-10절은 전쟁을, 11-18절은 법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대부분을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응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7절). 그래서 다윗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4절)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전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까닭 없이' 미워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와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5절).

사라의 몸종 하갈이 광야로 도망갈 때 그녀 앞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와 사자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도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와 군대장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사자굴 속에서 동행하신 여호와와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여호와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여호와와 천사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 스테반이 순교의 제물이 될 때,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형 갓을 때에 만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 법정에서 이기게 하소서

다윗을 박해하는 원수들이 갖은 거짓말로 그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원수의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므로 저들이 시인의 개인적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와 원수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먼저 이웃에게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습니다. 원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7년 섬김위원 임명

2007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오 늘부터 임명된다.

오늘 낮 예배시간에는 서리집사와 교구일꾼 그리고 각 부서에서 봉사할 모든 섬김위원들이 임명된다. 단 6일(수)에 은빛 찬양대, 10일(주일)에는 찬양위원회 소속 각 찬양대원들, 13일(수)에 호산나와 시온 찬양대, 그리고 17일(주일)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각 부

교사들이 임명된다.

임명받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세움을 받고 개인 신앙성숙의 기회를 삼아 교회에 덕을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2007년도 서리집사, 교구일꾼을 비롯한 각 섬김위원들의 최종 확정된 명단이 오늘 주보와 함께 배포된다.

교구총회 열려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오늘 임명받은 교구일꾼들이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교구총회를 갖는다. 교구지도 교역자와 교구장 소개가 있는 후 각 교구별로 모임을 갖고 간사와 다락

방장 소개와 2007년도 교구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새출발을 위한 기도를 한다.

2007년도 목회정책 협의회 연다

12월8일(금)-9일(토) 대전 유성에서

우리교회 목회지침을 바르고 효과 있게 수행하기 위한 목회정책협의회가 교역자와 장로가 함께 오는 8일(금)-9일(토) 1박2일 기간 동안 대전 유성에서 갖는다. 각 위원회와 부서장들은 1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당회 앞에 발표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모든

프로그램을 확정 짓는다. 우리교회는 일관성 있는 행정원리를 강조하고 있어 한 번 정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이번 정책협의회는 매우 중요함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요망된다.

2007 순결서약식 접수 시작

2007년 1월7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서약식 가져

우리교회는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오는 2007년 1월7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아직 순결서약을 하지 않는 13세 이상 미혼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서는 각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접수는 12월24

일(주일)까지 받는다. 순결서약 접수 시에 후견인의 이름도 함께 기재하기 바란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운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3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동명이인 명단 수정판 배포

교회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아 본인 확인을 위해 순례자 775호와 함께 명단을 배포한 바 있으나 몇 분의 이름이 누락되거나 번호 매김에 차질이 있어 멀티미디어 팀이 등록 순으로 재조정하여 최종확인된 명단을 발표하였다.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인 숫자가 있는 분은 항상 이름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권사회 총회

6일(수) 오후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교회 샬롬권사회(회장 이민화 권사와 권사회(회장 이영희 권사는 권사회 총회를 12월6일(수) 1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갖는다. 이날 새 회장단이 당회장에 의해 임명되고 특히 지난 주 새로 취임한 권사들을 환영케 된다.

찬양위원회

찬양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는 4일(월) 대장, 지휘자, 반주자 전원의 모임을 갖고 연말연시 행사 및 새해 방향을 의논한다.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로도 마련된다.

2007년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 후원자 모집

농어촌교회 목회자 최저 생활비 보조

2007년에도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은 본 교단 총회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에 따라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조하는 일을 협력하고 있다. 교회 내의 개인, 가정, 기관, 단체는 약정된 구좌(1구좌:월10만원, 1/2구좌:월5만원)를 후원함으로써 미자립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는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히 후원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하여 후원할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12월 17일까지이며 전도위원회에서 온 교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15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자 명단>

강상범 강석조 권순단 김애실 김인실 김정숙 김형희 김혜중 남상경 박정선 박태선 신기원 유덕자 이은상 이종숙 이태주 임수현 임우택 임채연 전배호 정유정 정진문 최위춘 최차순 이상 24명

호산나 학교

2007년도 신입생 모집

기타(guitar) 자원봉사자 모집

12월15일(목) 오후 6시 까지 접수

우리교회에서 이 땅의 소외된 장애우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한 호산나 복지재단 내에 설립한 호산나 장애인 전문대학에서 200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고졸 이상의 성인 지체 및 발달장애인으로 3년 과정으로 교육한다. 접수는 12월4일(월)부터 15일(목)까지 한다.

한편 호산나 학교 정서교육의 일환으로 기타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호산나 학교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호산나 학교(02-558-7166)로 하기 바란다.

선교사 파송, 9대 집사, 8대 권사, 1대 협동권사 임직식

한알의 밀알이 되는 청취자들



“성령으로 안수받는 집사님들,
눈물로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
씩어지는
한알의 밀알이 되기를...”

님이 물으시면 무어라 대답할까

천년 만년
변치 않는다고
광야에 토해낸 울음
얼마런가

어쩌면
쓸모 있는 듯 하다
어쩌면
만삭되지 못한 아이처럼
애굽의 고기 가마만 휘 짓고
그 때부터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돌이키지 못하고
부름 받은 여인이여

님이 물으시면
무어라 대답할까

어찌 할꼬!
새벽마다
정한 마음
하늘 심장에 걸어놓고
보배로운 피 속에
신을 벗은 여인이여

십자가에 갇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사는
처음 사랑의 죽음
휘어진 등줄기에
붉은 산이 솟아 오른다

신동기권사



사진: 정동호 집사

천국시민양성- 호산나학교 가을캠프를 다녀와서

파란하늘 아래서...

다채로운 색깔이 알록달록 예쁘게 조화를 이루는 이 가을...

지난 2006년 11월 14일(화) ~ 17일(금) 3박 4일간 호산나 가을캠프 "Fall in Spot"가 호산나 전문대학, 호산나 초·중·고등 대안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렸습니다.

캠프 첫째 날, 낭만의 대명사인 '남이섬'에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안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맑은 공기를 머금으며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며, 이 날 만든 '찰칵' 그 어떤 영화 주인공보다 멋진 모델이 되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둘째 날, 이번엔 예술가가 되어 하얀 티셔츠 위에 색색 물감으로 나만의 옷을 꾸며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대하였던 오션월드에서의 물장난과 수영-파도치는 물결 속에서 몸을 기대며 물과 하나 된 시간, '찰칵' -물장난을 치면서, 튀기는 물방울처럼 싱그러운 웃음을 짓는 학생들, 물속에서 마냥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표정 하나 하나를 가슴속에 '찰칵' 찍



어두었습니다.

올 2006년

호산나 학교 학생들에게 추수할 것들을 풍성하게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

셋째 날, 산책로를 따라 등산을 하며 땀을 흘린 후, 정상에서 푸른 하늘과 가까이하며 뿌듯해 하였던 아침. '뽕뽕' 달리는 오프로드에 몸을 싣고 가을바람을 손으로 느끼며 상쾌함을 외쳤습니다.

파크 골프-푸른 잔디밭에 떨어지는 하얀 작은 공,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공속에 우리의 모든 고민도 함께 던져 보았습니다.

이맘 때 쯤이면 집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간절 하겠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 준 부모님께 그리움과 감사를 담아 편지를 씁니다.

우리 조만의 특별 메뉴를 만드는 저녁 요리 시간 - 수업시간에 배운 실력을 모두 발휘하여 요리사가 되어 협력하여 만든 작품을 다른 조끼리 서로 나눠먹는 재미가 더욱 쏠쏠하였던 시간.

2006년을 장식하는 캠프 마지막 날 - 풋풋한 정을 느끼며 4일 동안 함께하였던 조원들과 모여, 캠프 활동 신문을 만들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2006년 첫 해 - 호산나 학교 학생들에게 추수할 것들을 풍성하게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07년에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호산나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 봅니다.

호산나학교 교사 일동

천국시민양성- 소요리문답반을 마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김경애 성도(13교구)

“소요리문답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

새가족부를 졸업하고 소요리문답반으로 온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더욱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이다 보니 정말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소요리문답...”

문답이라 함은 묻고 답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대체 소요리란 무슨 뜻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소요리문답반이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처음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한 터라 그 단어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고, 교과 과정이 1년 동안이나 진행된다는 사실에 조금은 부

담스러웠지만, 가만히 돌아켜보니 초신자인 저에게는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기초부터 배울 수 있었던 너무도 소중한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이 되는 목적, 하나님의 섭리, 예수그리스도, 성령의 동행하심, 십계명과 주기도문 등을 48과에 걸쳐 자세히 공부하면서 믿음의 분량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여 갔고, 공부 시작 전에 각자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중보기도의 힘과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친교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가져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살아 계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소요리문답에서 제가 가져가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나누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보다 이웃을 먼저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4일(월) 총회표준주석 편찬위원회에 참여한다. 5일(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한국 동창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7일(목)-8일(금)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에 참여한다.
- 교역자 휴대전화 번호 변경 : 이태훈 목사: 010-9466-0192
- 개업 : 조옥 · 김혜정 성도(3교구) Joe's 샌드위치 & 커피 선릉중앙점 Tel: 2008-0711
- 이사 : 이복규 장로 · 한명순 권사 가정 청담동 56-16 연세빌라 901호
- 득녀 : 김오른 · 이주연 성도 가정(김태기 장로 2남 가정) 홍진선 · 박성훈 성도 가정(홍성주 장로 2녀 가정)
- 주간 식당 봉사 : 안드레션교회(12월3일), 베드로선교회(12월10일)
- 금주의 식사 제공 : 유승순 장로 소선자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7년도 서리집사, 섬김위원으로 임명된 이들 죽도록 충성하는 사역자들 되도록
2.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회개의 결심이 있기를
3. 서울교회 성도들의 평안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위하여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